

오케이온골프웹진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도비아크로벳리더(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어도비아크로벳리더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설치한 후 웹진을 보시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 AFP연합뉴스

'역전의 여왕' 김세영, 마이어 클래식 연장 끝에 우승

5월 텍사스 슛아웃 이후 약 한 달 보름만의 태극낭자 우승 가뭄 해갈

'역전의 여왕' 김세영이 미국여자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연장 끝에 시즌 두번째 우승을 차지해 태극낭자들의 우승가뭄을 해갈했다.

김세영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래피즈 블라이드필드 컨트리클럽(파71·6414야드)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를 추가,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로 카를로타 시안다(스페인)와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3라운드까지 3위였던 김세영은 이날 17번 홀(파4)까지 단독선두를 달렸으나 우승 퍼팅을 남겨둔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며 시안다에게 동타를 내줘 연장승부를 펼치게 됐다.

지난해 3승을 기록하며 신인왕에 올랐던 김세영은 올해 3월 JTBC 파운더스컵 우승 이후 3개월만에 시즌 2승을 올렸다. 우승상금은 30만달러(약 3억5000만원)를 손에 쥐었다. LPGA 통산 5승이다.

김세영은 이번 우승으로 사실상 올림픽 출전도 예약했다. 이 대회 전까지 김세영은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인비(28.KB금융그룹) 다음으로 높은 5위였다. 한국 선수가 우승한 건 지난 5월 신지은(24.한화)의 텍사스 슛아웃 이후 약 한 달 보름 만이다. 올 시즌 한국 선수의 승수는 6으로 늘었다.

한편 전인지는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로 단독 3위를 기록했다.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은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로 단독 6위를 기록했다

우리 **인도어 TV골프** 한판 붙을까?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정확한 구질
현장감 넘치는 그래픽과 사운드
연습과 실전 리운딩을 동시에!

Indoor TV Golf

답답한 스코어 골든어너슬!
실외연습장에서 라운딩을 즐기면 내 마음의 백스!

스코어	62.4m/s
구질	10.00kg
구속력	0.00%
구질	1.00m
구속력	3050.0rpm
구질	155.3m
구속력	155.3m
구속력	237.3m



엄마골퍼 안시현 12년 만에 우승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오지현 우승



박지영, 40개 대회 만에 첫 우승

관련기사 2면

제10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박지영, 40개 대회 만에 첫 우승



제10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7억 원, 우승 상금 1억 4천만 원)이 지난달 1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에 위치한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파72/6,478야드)에서 열렸다.

대회서 박지영이 첫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 우승 없이 신인왕이 됐던 아쉬움을 털었다.

박지영은 제주도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17언더파 199타를 친 박지영은 고진영을 4타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4천만원을 받았다.

박지영은 지난해 KLPGA 투어에 데뷔, 신인상을 차지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해 팬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

2라운드를 끝낸 뒤 "간절하게 우승을 바란다"고 했던 그녀는 이로써 40개 대회 출전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1타차 단독 선두로 3라운드를 시작한 박지영은 전반에만 버디 4개를 잡아냈고 2위 그룹과 3타차로 벌렸다.

올 시즌 2승을 올린 장수연의 추격도 매서웠다. 11번홀까지 3타를 줄이며 박지영을 압박했다.

고진영은 하루 동안 7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13언더파 203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지영과 우승 경쟁을 벌인 장수연은 11언더파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올 시즌 4승을 거둔 박성현도 6타를 줄였으나 1,2라운드의 부진 때문에 공동 4위에 그쳤다.

출처: KLPGA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엄마골퍼 안시현 12년 만에 우승

32살 엄마골퍼 안시현(32골든블루)이 메이저대회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에서 12년 만에 우승했다.

안시현은 지난달 19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클럽(파72-6619야드)에서 열린 K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제30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한 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치며 우승컵을 안았다.

총상금 10억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4라운드로 치러졌다. 안시현은 상금 2억5천만원과 함께 자동차를 부상으로 받고 내년 LPGA투어 KIA클래식 출전권도 획득했다.

안시현은 이날 지난해 챔피언 박성현을 한 타차로 제쳤다.

지난 2003년 제주에서 열린 LPGA투어 CJ나인브릿지 클래식 우승으로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안시현은 2004년 엑스캔버스 대회 우승 이후에 다시 12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3년 시드전을 통해 2014년부터 국내 투어에 복귀한 뒤 상금 랭킹 30위권 밖을 맴돌다 드디어 정상에 복귀했다.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오지현, 역전드라마 쓰며 역전 연장 우승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6(총상금 7억 원, 우승 상금 1억 4천만 원) 지난달 23일 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아일랜드 리조트(파72/6,522야드)에서 막을 올렸다. 대회 주인공인 오지현은 이날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생애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프로 3년차 오지현은 경기도 안산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열린 최종라운드에서 여고생 아마추어 성은정과 최은우를 연장전 끝에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낸 오지현은 이로써 7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하나 더 추가하는 기쁨을 안은 것.

대회 마지막날 18번홀에서 벌어진 연장전에서 오지현은 3m 버디 퍼트를 성공해 거짓말 같은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한편 박성현은 3타를 줄여 합계 9언더파를 기록했으나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해 공동 4위에 머물렀다.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이상엽 생애 첫 승

2014년 KPGA 챌린지투어 상금왕 출신 이상엽(22)이 KPGA 코리안투어 유일한 매치플레이 대회인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총상금 8억원, 우승상금 1억 6천만원)에서 생애 첫 승을 차지하며 '매치킹' 타이틀을 획득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 사랑, 나라코스(파72, 6,972야드)에서 진행된 최종일에는 조별리그 제3경기와 최종순위 결정전이 펼쳐졌다.

이상엽은 조별리그 제3경기에서 'SMBC 싱가포르오픈' 우승자인 송영한(25.신한금융그룹)을 1UP으로 꺾고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기록하며 황인춘(42.후쿠즈미, 휴센), 박상현(33.동아제약)과 나란히 3승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3승 기록자가 3명이었고, 결승전에 진출해야 하는 선수는 2명뿐이라 승점을 따진 결과 이상엽은 승점 8점으로 7점을 기록한 박상현 보다 1점 앞서 10점을 쌓은 황인춘과 결승 대결을 펼쳤다.



두 선수가 벌인 결승전은 근래 보기 드문 명승부였다.

이상엽은 전반 9번홀까지 황인춘과 AS(All Square)로 평행선을 그리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이어진 후반 첫 홀 10번홀(파4)에서 이상엽은 황인춘에게 버디를 맞고 1홀 차로 끌려갔다.

이상엽은 11번홀(파4)에서 티샷이 아웃 오브 바운즈(O.B.)가 나 다시 홀을 내준 뒤 12번홀(파3)과 13번(파5)에서 잇달아 패해 연속 4개 홀을 내주며 끌려갔다.

5개 홀을 남겨둔 상황에 4DN으로 패색이 짙던 이상엽은 14번홀(파4)부터 드라마틱한 결과를 쓰기 시작했다. 14번홀부터 마지막 18번홀(파4)까지 5개 홀 연속 승리를 가져오며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이상엽은 경기 후 "예선전을 통해 올라왔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는데 우승까지 해 기쁘다. 사실 결승전에서 4다운까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샷도 좋지 않았고 우승은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고 말한 뒤 "더욱이 10번홀 이후 4홀 동안 2번이나 오비가 나는 등 많이 흔들렸다. 샷이 너무 안 맞아 티샷 시 드라이버를 안 잡으려다 14번홀에서 캐디를 보신 아버지(이해준, 64년생)의 권유로 드라이버를 잡았는데 그때부터 경기가 잘 풀렸다. '매치 플레이니 한 홀을 저도 다음 홀에서 만회하면 된다'고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신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컸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해우(55) 선수의 조카인 이상엽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큰 아버지(이해우)가

있는 연습장에 같이 갔는데 골프클럽을 추천해주는 등 골프 입문에 영향을 주셨다." 고 말한 뒤 "하지만 직접적인 골프 입문의 동기는 8살 때 여성용 8번 아이언으로 스윙을 했는데 너무 잘 맞아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 시작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의 그 느낌을 못 찾고 있다." 고 웃으며 말했다.

최근 샷이 좋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는 이상엽은 "시즌 개막전인 '제11회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에서 TOP10안에 든 이후 샷의 일관성이 없어 줄곧 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히 드라이버 샷이 안 좋는데 오비가 많이 난다." 고 고충을 밝힌 뒤 "매치플레이에서는 '어차피 오비가 나도 한 홀만 포기하면 된다' 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경기했다. 오늘 우승했기 때문에 자신감은

많이 붙을 것 같지만 더욱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 단점 샷의 일정함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 선수라면 최종 목표는 미국 PGA투어에 진출 해보는 것이 당연한 꿈일 것이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US오픈'에서 우승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며 당찬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통산 4승의 황인춘은 2010년 한중투어 KEB 인비테이셔널 2차 대회 이후 5년 9개월 만의 우승을 노렸으나 이상엽의 패기에 막히며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다.

출처: KPGA

OKongolf

Club Championship

네트워크 온라인게임으로 진행되는 OK온골프 스크린골프대회로써 **각매장, 동호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OK온골프 챔피언십이라 칭하며, 각 클럽대회를 통하여 매장, 동호회의 친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필드의 대세 박성현, KLPGA 흥행 이끌어



다른 사람과 같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의 ‘남달라’가 별명인 박성현. 자신의 캐디백에도 ‘남달라’라는 글자를 새겨 놓은 박성현이 올 시즌 KLPGA투어의 각종 기록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탁월한 성적을 바탕으로 후원에 있어서도 꾸준히 상한가를 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투어의 대세로 꼽을만한 선수가 있다면 단연 박성현(23갑스)이다. 박성현은 올해만 KLPGA 4승을 거뒀을뿐 필드의 대세로 투어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박성현은 최근 강원 춘천시 라데나골프클럽에서 끝난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에서 김지현(25)을 연장 접전 끝에 꺾고 시즌 4번째 우승을 챙겼다. 시즌 개막 전에 5승을 목표로 잡았던 박성현은 “반드시 우승하고 싶었던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라 기쁘다. 목표인 5승에 1승만 남겨졌지만 다음 우승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승률 66.7%(6개 대회 참가해 4승)를 기록하며 다승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성현은 상금(5억2767만5000원), 대상 포인트(224점), 평균 타수(69.47)에서 모두 선두에 올라 다관왕을 위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KLPGA투어의 대표적 ‘장타자’인 그는 드라이브 비거리도 267.31야드로 1위다. 시즌 초반부터 맹렬한 기세로 승수를 쌓아 올리고 있는 박성현이 올 시즌에 KLPGA투어의 각종 기록을 갈아 치울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역대 KLPGA투어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은 신지애의 9승(2007년)이며,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은 김효주가 세운 12억890만 원(2014년)이다.

박성현은 지난해 28개 대회에서 3승을 거

두며 상금 7억3600만 원을 챙겨 일찌감치 국내 투어 무대를 이끌어갈 강자로 주목받았다. 올 시즌엔 장기인 장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약점으로 지적됐던 쇼트게임과 퍼팅을 보완해 한층 더 발전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박성현은 그린 적중률(80.74%) 1위에 올라 있다. 평균 퍼팅 수는 29.80개(11위)로 지난해 31.15개(공동 74위)보다 성적의 좋아졌다.

올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 주 터메쿨라에서 전지훈련을 한 박성현은 쇼트 게임 연습에 집중하는 동시에 한 시즌 내내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한 체력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박성현은 팔굽혀펴기를 50회씩 4세트, 하루 200회를 반복하며 상체 근력 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현은 “열심히 전지훈련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체력 등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경기를 하면서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쾌한 장타와 역전승을 이끌어 내는 강한 집중력 등 스타성과 흥행 능력을 두루 갖춘 박성현은 각종 업체의 후원을 받아 ‘걸어 다니는 광고판’으로 불린다. 고품격 종합 가구 전문 기업 넵스는 2013년부터 박성현의 메인 후원을 맡고 있다.

국내외 대회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빈폴골프가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빈폴골프와 2년 계약을 맺은 박성현의 연간 계

약금은 1억5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빈폴골프는 박성현을 상징하는 색깔로 ‘노란색’을 선택한 뒤에 박성현의 시크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의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현의 공과 장갑은 타이틀리스트가, 신발은 나이키골프가 후원하고 있다. 클럽과 캐디백 등을 후원하는 핑골프는 박성현이 지난해 한국여자오픈 골프대회 등 3승을 차지하자 ‘골드 퍼터’를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올해 4월에 아우디의 공식 딜러인

고진모터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해 아우디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아우디 A6’를 전달받아 KLPGA투어 기간에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 비즈니스호텔 체인인 베스트웨스턴은 박성현이 대회 기간 중에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베스트웨스턴은 박성현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내 투어에 참가하거나 유럽 등 해외에서 경기를 할 때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KLPGA



여름 바다를 비행하는 짜릿함 디오션 컨트리클럽



다도해의 절경을 병풍삼아 남해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은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은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과 힐링 그리고 감동이 가득한 골프장이다.

남해안의 해양풍이 있어 여름에는 더욱 시원한 디오션 컨트리클럽의 여름 풍광은 가히 치명적이다. 골프장으로 불어오는 남해안의 시원한 해양풍과 천연 자연이 어우러진 주변경관은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여름 바다로의 짜릿한 비행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탁 트인 바다의 상쾌함이 그대로 담겨있는 디오션 컨트리클럽은 2012년 초에 개장한 퍼블릭 골프장으로 일반 대중에게 열려있는 곳이다.

특히 18홀 전 홀에서 다도해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코스는 고저차에 따른 거리변화와 바람, 자연친화적인 명문 골프코스로서 골퍼들의 도전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해안선을 따라 자연과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능선부에 코스를 설계, 자연지형을 충분히 살리고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배려한 친환경 코스로 심신을 충전할 수 있다.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웨스트오션코스(1홀~9홀)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이스트오션코스(10홀~18홀)는 층층이 나뉜 테라스 타입의 계단식 홀 전경은 마치 유럽의 대형 스포츠 경기장 관람석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 아기자기하게 배치된 벙커와 연못 등은 코스를 공략해 나가는 골퍼들에게 짜릿한 반전과 긴장감을 선사한다.

손짓하는 에메랄드빛 물결

18홀 전 홀에서 바다가 보이는 씨사이드 골프장으로서 남도골프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오션컨트리클럽은 클럽하우스를 지나 첫 대면하는 1번홀에서부터 감동을 주며 골프장을 방문하는 골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바다 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차별화된 페어웨이와 약간의 오르막 경사 그린을 가지고 있지만 홀 전경과 바다, 멀리 여수도 섬의 해안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출발이다.

바다를 살리며 만들어진 최고의 뷰포인트는 역시 웨스트코스 2번홀이다. 백야도와 금오도를 비롯해 사도와 다도해의 다양한 섬들을 병풍 삼아 샷을 할 수 있는 파 4홀인 웨스트 2번홀은 도시의 답답함을 씻어내는 듯한 풍광과 함께 더욱 멋진 샷을 꿈꾸게 한다. 특히 이곳은 우측에 다도해 여수의 빼어난 섬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확 트인 바다전망은 세계적인 코스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해안선을 끼고 높은 지형을 다듬어 펼쳐진 디오션컨트리클럽의 또 하나의 매력은 높은 티박스에서부터 낮은 그린을 향해, 확 트인 시야 속으로 샷을 날리는 홀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오션컨트리클럽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바다다. 그래서인지 수평선 너머서쪽하늘로 저물어가는 석양의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을 연출한다.

한편 디오션 컨트리클럽은 이번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1박 2일 골프패키지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 예약 접수를 시작했다. '바다를 품은 골프장'으로 알려진 디오션 컨트리클럽은 확 트인 바다의 상쾌함으로 인해 많은 골퍼들이 꼭 한번 찾아 볼만한 코스로 꼽히고 있다.

색다른 물의 유혹, 바다위의 워터파크

여수시 소호동 해안가 기슭 40m 높이에 조성된 다도해가 한눈에 조망되는 '디오션 워터파크'는 동시 수용인원이

6천명 이상이며, 온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내시설과 친구, 연인과 짜릿한 스릴을 체험할 수 있는 실외 시설로 구분돼 있다.

디오션 워터파크의 가장 큰 매력 또한 바다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다. 워터파크 바로 옆 소호요트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요트가 항해하는 푸른 바다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슬라이드를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짜릿함을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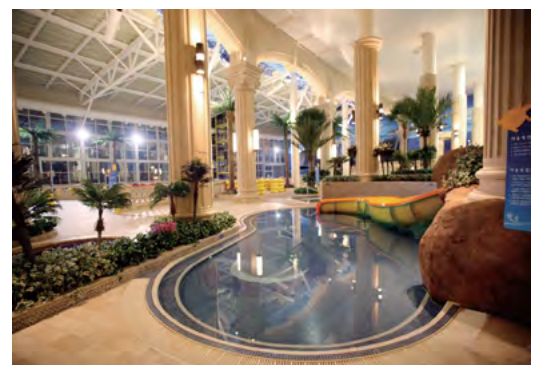
모든 시설물들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마치 바다에 뛰어 들거나 빠지는 듯한 시원함을 선사하고 바다의 짙내음이 바람을 타고 넘어와 더위를 날려버리며, 마치 바다위에 떠 있는 착각을 일으켜 “바다위의 워터파크”로 불리며 남해안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오션리조트는 컨트리클럽을 비롯하여 호텔 137실, 콘도미니엄 128실, 6,000명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와 함께 사우나, 연회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모든 객실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푸른 남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남도 최고의 힐링 플레이스다.

여수시 중심가와 가까워 KTX 고속철도, 여수공항, 고속버스 등 교통 인프라가 최고 수준이며, 순천 IC에서 20~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올 여름 바다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바다를 품은 골프장과 바다위의 워터파크가 있는 남해안 최대 가족형 해양 복합휴양지인 여수 디오션리조트로 발길을 옮겨 보는 건 어떨까.

올 여름 바다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바다를 품은 골프장과 바다위의 워터파크가 있는 남해안 최대 가족형 해양 복합휴양지인 여수 디오션리조트로 발길을 옮겨 보는 건 어떨까.



호미질에서 홀인원까지 배우 박선영

'불타는 청춘'에서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며 관심을 집중시켰던 배우 박선영. 뚜렷한 이목구비 만큼이나 뚜렷한 골프스타일을 가진 그를 만났다. 진정한 골프홀릭인 그녀의 골프 이야기로 여름 라운딩을 즐겨보자.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체대 출신이라 농구, 탁구, 마라톤 등을 즐겨했는데, 지인과 함께 라운딩 갈 기회가 있어서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지인이 제게 '그게 무슨 호미질이야?' 하는 말이 체육전공인 제게 승부욕을 발동시켰죠.

오기가 나서 그 후로 연습을 시작한게 6개월만에 싱글을 치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스코어가 안 줄어서 고민했는데, 잘 치는것도 중요하지만 코스 설계자의 의중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구력, 베스트 스코어, 자주찾는 골프장과 그 이유가 있다면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었고, 레이디티에서 2연대까지 쳐봤어요. 운동을 좋아하고 지는것을 싫어해서 젊었을 때 접했다더라면 선수의 길로 나갔을 수도 있을거예요.

골프란게 주기가 있는것 같아요. 몇년전 교통사고로 등을 다쳤는데, 통증이 심해서 스윙폼도 바뀌었죠. 요즘은 아무리 못쳐도 남들 치는 만큼은 치니까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약간의 정체기를 겪고 있었어요.

1년 365일 골프하며 살았을 만큼 '골프홀릭'으로 알려져 있는데 골프의 매력이 있다면

운동하다 그만둔 경우라면 당시에 죽기살기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육상선수 출신이기에 육상관련해서는 눈길이 가지 않지만 골프는 매력이 있는것 같아요. 골프칠때는 다른생각을 할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이동시간 포함해서 하루 10시간을 재밌게 보낼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몰입도가 큰 편이죠. 한창 칠때는 1년에 350일 정도는 했던것 같아요. 그런만큼 부상방지를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했어요. 예전에는 힘으로 치는 스윙이었다면 요즘은 스윙어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장타자로 알려져 있는데, 장끼샷이 있다면

비거리 보다는 퍼팅이 자신 있어요. 비결이 있다면 골프의 생활화예요. 헤드무게를 손으로 느끼도록 연습을 쉬지 않는것이 중요해요. 집에서 퍼팅연습기로 감을 익히고 있어요. '나는 왜 안되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집에서 연습을 안합니다.

여름철 골퍼들에게 전해주고픈 팁이 있다면

여자들은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프에 도움을 주는 운동인 필라테스나 피지컬 트레이닝을 권해드려요. 여자프로들이 남자프로 만큼거리가 나는 이유는 유연하기 때문이죠. 트레이닝은 나이가 들어서도 필



요해요.

골프치면서 트레이닝을 하면 볼이 안맞기 때문에 겨울에 골프에 관련된 근육들을 강화하는게 비결이죠. 클럽챔피언이나 싱글 치시는 분들 중에 안아픈 분이 없어요. 통런하기 위해서는 다른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름철에는 물도 많이 먹어야 해요. 라운딩간 몸에 열을 많이 받기때문에 샤워 후 냉탕에서 손과 발을 담궈 열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여름 라운딩 오전에 샤워 후 바디로션도 안발라요. 화장도 잘 안하구요. 벌레가 많이 껴서 지양하는 편이죠.

ASX연예인 골프단으로 활동중이다. 간단 한소개 부탁드립니다.

연예인 골프단 중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팀이라 할 정도로 오래되었죠. 멤버간 돈독한 관계로도 유명하구요. 잘 알려진 웨스 골프 장타대회나 1년에 2번씩 해외대회가 있어서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어요. 가수 강은철씨가 단장으로 모임시 8~9명의 높은 출석률을보이고 있죠. 오랜모임을 갖다보니 실력이 평준화 되었죠.

어떤 배우로 남고 싶은지

저도 친구따라 캐스팅 된 경우예요. '이게 내길이다'란 생각으로 평생 연기만 하며 인생을 걸고 싶진 않아요. 연기는 목표가 없잖아요. 신인시절 연기할 때 평소와 별다른없는 모습의 선배님들을 보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게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주위 친구들을 봐도 제 또래가 되면 뭔가에 몰입하며 즐길 수 있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직업으로하는 일 외에 취미나 여가로 나를 돌아보며 충전할 수 있는 매개물. 전 그게 골프인거죠.

고정된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이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하지원이란 배우가 그냥 예쁜척만 하는 여배우였다면 지금과 같은 인기를 갖기 힘들었을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스포티하고 중성적인 면이 부각되어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기가 가진 이미지에만 안주하지 않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거죠.

저도 앞으로 액션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요즘 검도 배우고 액션스쿨도 다니고 있어요. 목검으로 골프스윙도 종종하는데, 무개가 딱이에요.

앞으로의 방송활동 계획은

큰 배역이 아니더라도 존재감을 줄 수 있는 배역이라면 가리지 않고 할 생각이에요. 연기자는 10년 정도의 터울을 갖고 연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 나이가 흔히 말하는 아줌마이지만, 대학생 딸을 둔 엄마 역할이거나 아가씨 역할을 하기에 좀 애매한 듯해요. 박정수 선배님 처럼 곱게 늙도록 노력하면 엄마역할로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주위 친구들을 봐도 제 또래가 되면 뭔가에 몰입하며 즐길 수 있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직업으로하는 일 외에 취미나 여가로 나를 돌아보며 충전할 수 있는 매개물. 전 그게 골프인거죠

캘러웨이골프, 오딧세이 하이웨이 101 퍼터 출시

캘러웨이골프(www.callawaygolfkorea.co.kr)가 캘리포니아 해안가의 낭만을 담은 한정판 퍼터 오딧세이 '하이웨이(HIGHWAY) 101'을 출시했다.

'하이웨이 101'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부터 오리건주를 거쳐 캘리포니아주 남단의 오션사이드시까지 연결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하이웨이 101 주변은 아름다운 해변 풍경과 서핑이나 자전거를 타며 바다를 만끽하는 사람들, 그리고 흥겨운 음악이 가득한 낭만적 공간이다. '하이웨이 101' 퍼터에는 이 도로의 대표적인 이미지 세 가지가 적용되었다. 블레이드 타입의 2번(Coastline)에는 해안가 고속도로와 갈매기가, 말렛형 5번(Surfer)에는 파도를 즐기는 서퍼, 특수형 7번(Cypress)에는 사이프러스 나무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

제품문의 : 02-3218-1900



카이도코리아, 제1회 아마추어 자선 골프대회

㈜카이도코리아가 설립한 (사)카이도사랑나눔연대가 제1회 아마추어 자선골프대회를 이달 26일 경산 인터볼고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다.

(사)카이도사랑나눔연대는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후원하고자 하는 ㈜카이도코리아의 '사랑·나눔'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카이도코리아 배우군 대표이사는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참여자의 긍지를 북돋고 대회의 품격이 더욱 풍족하게 조성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아마추어선수들이 평소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또한 "나눔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회 참가가능인원은 총 144명 40팀이며, 카이도 골프클럽을 사용하는 국내 순수 아마추어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카이도 클럽이 없어도 현장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18홀 스트로크(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는 MBC PLUS 채널을 통해 녹화방송되며, 우승자에게는 다음날 있을 카이도 MBC PLUS 여자오픈 대회 프로암 초대 및 방송 인터뷰 특전이 제공된다. 참가비는 8만원으로,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별도) 대회로 조성된 기금은 전액 (사)카이도사랑나눔연대를 통해 취약계층 희망 조성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확인으 카이도 MBC PLUS 여자오픈 대회 사이트(www.caidogolfopen.com)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카이도코리아는 한국 골프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앞장서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 중 '겸손과 배려'라는 골프의 기본 정신은 각박한 승부 속에 놓치기 쉬우나,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미덕이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그러한 차원으로 대회 기간 동안 참가선수 무상 호텔 숙박지원 및 전 일정 뷔페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는 파격적인 선수 지원 프로모션을 밝힌 바 있다. 치열한 승부 속에 선수들의 중압감을 덜고 기개를 떨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격려의 취지이다.

'카이도 MBC 여자오픈' 대회는 같은 장소인 경산 인터볼고C.C에서 7월 29(금)부터 31일(일)까지의 일정으로 144여 명의 참가선수, 총상금 5억 원의 규모로 열린다.

카이도코리아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카이도사랑나눔연대
아마추어 자선 골프대회

📍 2016년 7월 26일
📍 인터볼고 경산 컨트리클럽

- 참가인원: 총 160명 / 40팀
- 참가대상: 카이도골프 클럽 사용하는 국내 순수 아마추어
*클럽 현담문의 02-562-6868 (현장 현담 가능)
- 참가비: 8만원(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별도)
- 경기방식: 18홀 스트로크(신페리오 사상)
- 방송중계: MBCPLUS 녹화방송
- 수상자특전: 방송인터뷰 및 프로암대회 초대
- 주요행사: 영접, 중식, 라운드, 만찬, 시상식, 환송
- 참가방법: 대회사이트(www.caidogolfopen.com)에서 대회참가신청 접수

* 본대회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사항은 대회사이트(www.caidogolfopen.com)참조

주최 | 카이도사랑나눔연대(비영리법인)
후원 | 카이도코리아 MBCPLUS

테일러메이드 스파이더 리미티드 퍼터 출시

테일러메이드 코리아(대표이사 데이비드 친)가 세계 랭킹 1위 제이슨 데이에게 영감을 받아 개발된 '스파이더 리미티드(Spider Limited) 퍼터'를 선보인다.

스파이더 리미티드는 제이슨 데이가 지난 RBC 헤리티지에서 공개한 신무기로 '레드(RED)'와 '투어 레드(TOUR RED)'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제이슨 데이를 비롯한 투어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설계한 스페셜 리미티드 퍼터이며, 호주의 붉은 등거미로부터 영감을 받아 레드 컬러를 사용한 것이 큰 특징이다.

정확한 퍼팅 및 자신감 제공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헤드는 푸른 잔디와 극명하게 대비됨으로써 쉽고 정확하게 볼을 목표지점에 조준할 수 있다. 또한 심리스 탑 크라운과 화이트 싱글 사이트 라인으로 더욱 선명하고 높은 시각적 대비로 조준 효과를 높여 보다 정확한 퍼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레드 컬러는 높은 가시성으로 그린 위에서 골퍼들의 자신감을 극대화 시켜준다.

최고의 안정감 제공

스파이더 리미티드는 멀티 소재 설계로 헤드에는 경량의 알루미늄을,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되었다. 퍼터의 무게중심을 헤드 주변에 효과적으로 분배시켜 매우 높은 관성 모멘트(MOI, 4900+)와 최고의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볼 스피드를 제공하고 임팩트 시 헤드의 뒤틀림을 최소화시켜 더욱 정확한 퍼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헤드와 프레임 사이에 PU 폼을 삽입해 불필요한 진동을 완화시켜 부드러운 타구감과 경쾌한 타구음을 제공한다.

문의 : 02-3415-7300



리우행 티켓 누가 잡나? 올림픽 티켓 경쟁 혼선

세계랭킹 상승한 이보미·박성현 가세



한국과 일본에서 맹활약하는 박성현(23·넵스)과 이보미(28)의 세계랭킹이 상승해 리우행 티켓이 혼전양상이다.

지난달 26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어스 몬다민컵에서 2연패에 성공한 이보미는 최근 발표된 세계여자골프랭킹에서 4.50점을 받아 지난주 15위에서 14위로 한 계단 올라서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희망을 이어갔다.

현 상태라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성적이 반영되는 오는 7월 11일까지 박인비·김세영·전인지·양희영 4명이 올림픽 티켓을 손에 넣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박인비의 컨디션이 호전되지 않아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그 다음

으로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염지 부상으로 대회를 쉬고 있는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8.16점으로 세계랭킹 3위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다소 주춤했던 3인방이 지난주와 동일한 순위에 자리했다. 김세영(23·미래에셋)이 5위(6.96점),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6위(6.14점), 양희영(27·PNS)이 8위(5.74점)다.

한 계단 밀린 장하나(24·비씨카드)가 세계랭킹 10위(5.56점), 유소연(26·하나금융)이 11위(5.17점)에 올라 있고, 이보미가 이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간판 박성현도 한 계단 상승한 17위(4.06점)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이보미와 박성현은 오는 7월 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 출전할 예정으로 한국의 상위 랭커들 가운데 우승자가 나온다면 판도 변화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시즌 3승을 달성한 뉴질랜드교포 리디아 고(19)가 14.93점으로 세계랭킹 1위를 질주했고,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2위(8.55점), 렉시 통슨(미국)이 4위(7.83점), 에리아 쭈타누깐(태국)이 7위(5.90점)를 각각 지켰다.



OK온골프 네이처

맞짱 대결

네트워크 게임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상대방과 1:1로 대결하는 방식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을 게임 안에서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게임.

★ 기능

- 원격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상대방과 1:1 대결 진행되고 함께 리운딩 하는 듯한 느낌으로 상대방의 실시간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이모티콘, 상용구) 기능 지원 (안드로이드 모바일용만 현재 지원 가능)
- 대전상대 영상 지원(상대가 모두 카메라가 있을 경우)
- 맞짱대결 플레이어
 - 가) 맞짱 플레이어 참여(맞짱플레이어는 비슷한 핸디캡을 가진 가상 플레이어로 인해 어디서든 맞짱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 나) 맞짱 플레이어와 대전을 하게 되면 동영상이 이모티콘이 서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다) 맞짱 플레이어의 아이디는 okxxx 입니다.



(맞짱 대결 상대)



(함께 플레이하는 모습)



(이모티콘 설정)



(뽑기 연동)

★ 게임 참가 방법

- 게임 메뉴 '동시티업' 선택
- 1 VS 1 맞짱대결





★ 앱 채팅

- OK온골프 앱 메뉴에서 '골프친구' 선택
- 맞짱대결에서 유저 선택하여 채팅





- 게임 티샷 후 자동친구 추가되어 친구 등록 가능
- 게임 동안 플레이어 자동친구 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 '앱, 홈페이지' 환경설정에서 '해제' 로 변경

- 앱에서 채팅 시 이모티콘, 상용구는 상대 게임화면에 표시됨.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맞짱대결 포인트 대전 챔피언십

네트워크 게임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상대방과 1:1, 2:2, 3:3로 대결하는 방식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을 게임 안에서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게임.

대회 기간 **1차** 06월 20일 ~ 07월 17일 (4주)

2차 07월 18일 ~ 08월 14일 (4주)

맞짱대결 1:1 2:2 3:3으로 온라인 대전시 각 홀마다 100 포인트씩을 걸고
획득한 누적포인트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에게 매주 시상하는 대회

- 실제 플레이어가 없을 때 알파골(가상플레이어)이 나와서 대결
- 플레이어는 핸디캡을 기준으로 유사한 핸디캡의 플레이어와 자동 매치.
- 1주일간 포인트를 누적 합산이 가장 많은 유저 순으로 결정

★ 포인트대전 참가 방법

- 메뉴에서 '맞짱대결' 선택
- 게임방식 '1:1, 2:2, 3:3 맞짱대결' 선택
- 회원로그인 후 포인트대전 챔피언십 선택
- 대전 상대 매칭 '준비완료' 선택 후 게임 진행









앱에서 맞짱대결 부킹 안내 바로가기 >

★ 룰북

- 출 플레이 시간

구분	Par 3	Par 4	par5 (par6)
시간	2분	2분 30초	3분 30초

가) 출 플레이 시간이 지나면, 30초 3회 추가시간을 줌.
나) 30초 3회가 지남 때마다 +1 벌타 발생
다) 시간 제한 벌타 4회일 경우 상대 플레이어에 피해 주는 행위로 간주, 게임 강제 종료 처리

- 맞짱대결 플레이어

가) 맞짱 플레이어 참여(맞짱플레이어는 비슷한 핸디캡을 가진 가상 플레이어로 인해 어디서든 맞짱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 맞짱 플레이어와 대전을 하게 되면 동영상과 이모티콘이 서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 맞짱 플레이어의 아이디는 okxxx 입니다.

- 게임 룰

- 참가자격: OK온골프 준회원 이상 (매장주, 매장관리원 증서지 제외)
- 게임 영상 미존재시 시상 제외 (알파골은 게임 영상에 없습니다)
- 2개 계정 이상 계정 소유시 시상 제외
- 수상자의 경우 동영상도 오름 됩니다.
- 중복시상불가: 상위상으로 수여
- 게임 영상에서 세컨샷을 티 위에서 한 영상 존재시 실격처리 됩니다.
- 포스는 랜덤으로 선택되어 집니다
- 시상 포인트: 지금시 5만포인트 이상시 제세공과금 22% 제외됩니다.
- 대회의 후원협찬사 협의로 중복시상 불가. 상용 우위 등급으로 1개 선정 처리됩니다.
- 포인트합산 동률시 1)참가횟수 (18홀 기준), 2)첫게임 시작일자 빠른순, 3) 최저타

★ 시상

- 1등: 10만 포인트, 하나투어(타이틀리스트) 모자
- 2등: 5만 포인트
- 3등: 3만 포인트
- 7위: 3만 포인트 (행운상)

오케이온골프와 하나골프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

혜택 1 하나골프의 전문 여행 상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혜택 2 구매금액의 1-2%를 OKON 포인트로 적립해 드립니다.



OKON포인트


OKON포인트

오케이온골프 회원 전용 여행물 >

연습과 실전 리운딩을 동시에! 인도어 TV골프 시스템 >> 자세히 보기

정확한 구질
- 7개의 초고속 카메라 센서가 백스핀, 사이드 스핀량을 측정하여 정확한 구질을 구현합니다.

골프연습의 새로운 기준 제시
- 백스핀량, 사이드 스핀량, 발사각도, 방향각도를 측정하여 연습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나는 잘 회전하고 있을까?

골퍼라면 스윙에서의 몸통회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만큼 잘 회전하고 있을까?

하지만 자신의 스윙을 동영상이나 거울로 확인해 보면 몸통이 틀어져서 제대로 회전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회전으로 쉽게만 스윙하다 보면 발전 없는 골프실력과 허리통증 등의 부상이 생기기 쉬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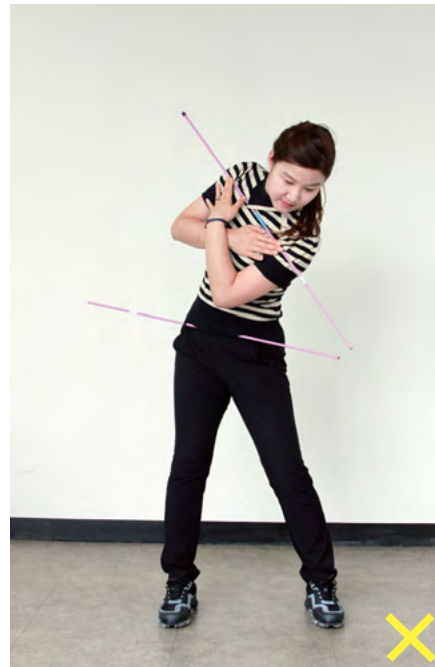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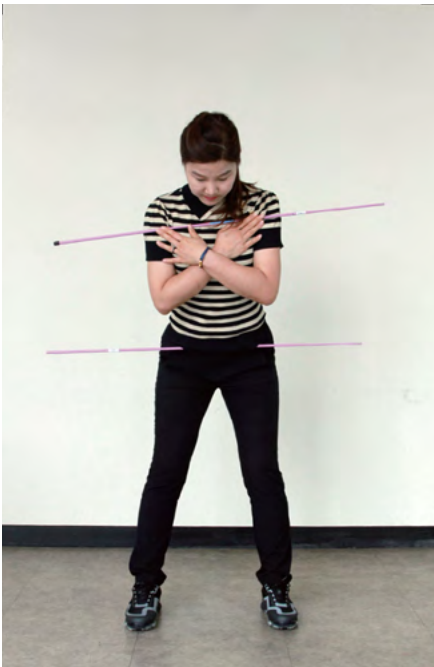


백스윙 회전

몸통이 회전하게 되면 사진에서처럼 골반이 뒤로 돌며 가슴이 오른쪽을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상체가 우측으로 살짝 기운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옳다.

대부분의 잘못된 몸통회전은 골반을 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사진에서 처럼 골반이 오른다리 위로 밀리며 가슴이 회전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머리로 왼쪽에 남아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돌리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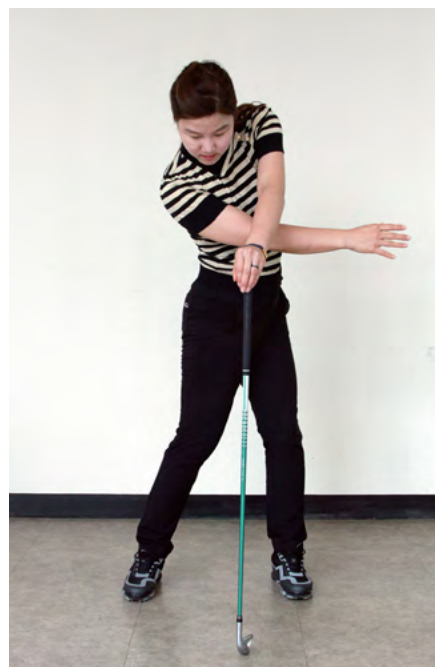
이때 몸통의 꼬임이 적어져 일정하고 파워 있는 다운스윙을 방해하게 된다. 백스윙에서의 올바른 몸통회전을 위해서는 척추각에 맞는회전과 밀리지 않는 골반의 회전 이 두가지를 꼭 지켜주어야 한다.



올바른 백스윙 회전을 위한 연습 방법 1

1.스틱 혹은 클럽을 바지에 어깨라인과 평행하게 잡고 어드레스 한다.

2.어깨와 hips을 기울기 그대로 회전하고 스틱이 수평으로 겹쳐졌는지 확인한다.



조서진 프로
KLPGA 정회원
전국체전 총복대표
STOTT 필라테스 수료
TPI 골프 피트니스 Level 1 수료
SJ골프아카데미 소속



올바른 백스윙 회전을 위한 연습방법 2

- 1.클럽을 세워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어드레스한다.
- 2.오른손으로 백스윙하며 몸통도 회전 해준다.
- 3.오른팔을 휘둘러 임팩트 한다, 이때 골반이 회전하며 왼쪽 옆구리가 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골프라운드시 누구에게나 인기있고 환영받는 10가지



추행에 가까운 용어는 삼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골프내기에서 따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좋다. 제일 좋은 것은 본전이면 최고다.

여섯째 멀리건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라운드하라.

일곱째 라운드 동반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인간관계 형성에 좋다.

여덟째 표정관리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OB나 미스샷을 하였을 때 좋아서 웃는 것은 금물이다. 가능한 무표정에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

아홉째 골프라운드피는 물론 그늘집 비용도 먼저 계산하고 캐디피나 식사피 지불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지갑을 열면 열수록 좋은 인상을 준다.

열째 스코어에 집착한 나머지 티잉그라운드나 그린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여 기피의 대상이 된다.

필자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라운드를 해보고 얻은 골프 10대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같이 라운드하는 골퍼들을 즐겁게 해줄 뿐더러 자기 인격을 상승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의 골프철학은 나에게서는 엄하고 상대방 에겐 관대한 나름대로의 지켜야 할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골프 철학을 가지고 인생이나 골프를 하다 보면 주위에 좋은 친구와 선배를 만날 수 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골프 동반자

로서 매너를 유지하다 보면 환영받고 대우를 받게 된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환대를 하면 골퍼로서 100점 만점 골퍼가 된다. 골프라운드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 10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골프코스에서는 언제나 복장이 단정하여야 한다. 상하 옷색깔의 배합과 모자, 구두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입

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특히 골프 구두는 구두약으로 윤을 내어 깨끗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간은 생명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시간을 지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짜라.

셋째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 자기에게는 엄하고 상대방에게는 관용을 베풀면 저절로 인격이 올라간다.

넷째 캐디에게 막말을 쓰지 말 것이며 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호 지켜야 할 예의가 있듯이 코스에서도 준수하여야 할 법칙과 예절이 있다. 오래간만에 대자연의 벗삼아 즐겁고 건강하여야 할 라운드가 나로 인해서 망가진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 환영받는 골퍼는 인생의 성공자이며 예상하지 않은 좋은 행운이 당신에게 찾아온다.

글 : 김맹녕 골프컬럼리스트

OKongolf

상위 1% 골퍼를 위한 싱크로율 99%의 초정밀 시스템!
100% 리얼리티 필드를 구현하는 유일무이한 시스템!

오케이온골프 스피ن시스템

카메라센서라고 다 똑같은 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센서는 볼의 스피ن량을 추정치로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정확한 실측에 의한 스피ن량을 측정하고 그 스피ن량을 실제 움직임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오케이온골프만의 기술력입니다.

초정밀고속 카메라

- 5대의 카메라가 매킹볼의 스피ن량을 입체적으로 실측하여 백스핀과 사이드스핀량에 따른 모든 구질을 표현합니다.
- 헤이드, 드로우, 슬라이스, 혹은 뽀른 피치 런, 러닝어프로치, 로빙 어프로치 등 숏게임도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 깎으면 깎이는 대로 돌리면 돌리는 대로 피팅한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여 그린에서 볼을 멈추거나 백스핀을 걸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볼의 위치로 편안한 라운딩을 제공하며 타석에 출몰된 센서가 없어서 필드에서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착우타석 검출)
- 피팅 연습 시 런치앵글, 방향각, 사이드 스핀을 분석하여 최적의 피팅 스트로크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Lighting-Halo 엔진

- 실제 사정처럼 느껴지는 첨단 그래픽 효과
- Full HD(1920*1080)를 베이스로 제작하여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 공정한 러프의 질감과 헤비러프의 깊은 울까지 자연스럽게 렌더링 됩니다.
- 설치 환경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사공이 가능하며 라운드 스크린도 지원됩니다.

N 자연을 담은 "네이처" 프로그램

- 물리학, 공기역학, IT공학, 프로그래밍의 전문 지식이 곳곳에 녹아있는 첨단 프로그램
- 지형의 고저, 중력, 바람의 저항, 풀의 저항, 지면의 충돌계수, 지형의 단상계수 등 자연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제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 새로운 MSBS 엔진 적용! 정확한 임팩트의 피팅한 손맛을 그린에서 느껴보세요. 볼이 스피ن량에 따라 살아서 움직입니다.

러블리 캐디와 함께 라운딩 하세요~

- 안락한 음성지원으로 라운딩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 상황별로 어떤 샷을 공략하는게 좋은지 알려줍니다.
- 특별한 미니 캐디의 간단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골프 실력을 늘리세요.

하반기 후 시장, '친환경차' 대세



쉐보레 볼트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출시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하면서 친환경차 시대가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지난 6월 성료된 부산국제모터쇼는 '미래의 물결, 강동의 기술'이란 주제에 맞게 각 브랜드들은 어느 때보다 출품 차량에 공을 들였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친환경'이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30대가 전시됐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대거 출품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서울 대리점의 채용공고를 내면서 연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에도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미세먼지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어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 신기술 적용한 친환경차 선보여
한국지엠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인 '볼트(Volt)'를 첫 공개했으며, 최근 북미시장에서 말리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 신규 출시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두 개의 전기 모터를 적용해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

가장 효율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1세대 모델을 보유한 고객 70,000여명으로부터 수집한 10억km에 달하는

누적 주행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다.

또한 기존 모델 대비 96개가 줄어든 192개의 배터리 셀을 탑재해 전체 배터리 팩 하중의 10kg을 감량하는 한편, 12%의 효율 개선을 통해 전기차 수준에 가까운 최대 89km의 순수 전기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데일 쉐리번(Dale Sullivan) 한국지엠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쉐보레 볼트(Volt)는 주행거리, 편의성, 상품성 등 모든 부분에서 기존 친환경차가 지닌 약점을 모두 극복한 파괴적 혁신의 사례"라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최근 출시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내세웠다. 또한 완성차와 함께 주요 부품인 배터리, 파워제어기, 감속기, 모터의 세부 모형을 별도로 전시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권문식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18년 1회 충전으로 320km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와 800km이상 주행 가능한 수소차를 내놓을 예정이며, 2020년까지 28개의 친환경차 차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현대차는 LG화학과 손잡고 파우

더형 배터리가 달린 전기차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형제사인 기아자동차는 K5 PHEV, 니로 하이브리드, 쏘울 전기차를 전시했다. K5 PHEV는 2015년에 출시된 현대차 쏘나타 PHEV와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로, K5 하이브리드 차량 대비 배터리 탑재 용량을 확대(9.8kWh)해 배터리 완충 시 최대 44km까지 전기차 모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니로 하이브리드의 출시를 통해 국내에서 월 2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K5 PHEV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3 전기차와 소형 전기차인 트위지(Twizy)를 공개했다. 트위지는 전기로 구동되는 1인용 소형 모델로서 미래 교통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트위지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로 한 번 충전으로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충전은 가정용 220V 전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올 하반기에는 곧 국내 도로를 달릴 현실적인 자동차로 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 아이오닉



SM3 전기차



쏘울 전기차

**KEN-
BLOCK**

www.kenblockkorea.com

켄블락코리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09-7
대리점문의처 : 031-332-4455 / golf911@nate.com

BEYOND URBAN SPIRIT

BORN IN KOREA

“컬러에 놀라고 성능에 반하다”

STITCH™
HEADCOVERS



Stitch Golf 헤드커버는 미국 North Carolina에서 100% 고급 소가죽으로 제작된 명품 수제커버입니다.

www.stitchgolf.co.kr

본사 (주)레이크스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99-198 B동 B1

TEL 02-401-7054

Balance Renovation

구입문의 1800-4690

REXY



SBS Golf
공식파트너십 체결

비거리를 위한 혁신
Performance Balance Socks

01 아치 서포트

양말 바닥의 특수소재가 하체를 견고하게 잡아줌으로 몸의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02 정확한 임팩트

하체를 견고하게 안정시켜 편안한 어깨 회전으로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합니다.

03 스웨이 방지

바닥의 좌,우측 특수 소재가 발의 미끄러짐과 뒤틀림을 방지하고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www.rexysport.co.kr



Transitions

눈 보호와 편리함의 만남, **니콘 트랜지션스**

실내에서는 안경렌즈로 편하게, 실외에서는 선글라스로 눈보호와 스타일을 한번에



- ✓ **눈 건강** | UV로부터 100% 눈 보호 + 탁월한 눈 피로 감소 기능
- ✓ **편리함** | 하나의 렌즈로 실외와 실내 생활을 동시에!
- ✓ **지속성** | 높은 대비감도의 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스타일리쉬 그린!

facebook.com/nikonlenswear
www.nikon-lenswear.co.kr

CALLAWAY
CELLAR SELECTION

골프의 전설 캘러웨이! 와인의 전설 캘러웨이!



골프의 전설 캘러웨이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캘러모니아 와인



EASY WINE CO., LTD T. 02. 308. 2134